사라지지않는 특수학교 폭행사건

1. 첫번째 문제 도를 넘은 훈육



특수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'훈육'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. 이는 결코 훈육이라 볼 수 없는 '폭행'이다.

2. 두번째 문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



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담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, 세종누리학교 장애 학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. (사진=연합뉴스).

특수학교의 교사가 아이를 잡고 질질 끌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밝혀지며 이는 엄연한 인권 침해 문제로 써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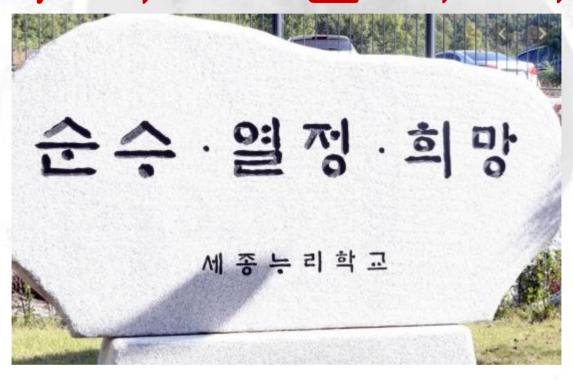
3. 세번째 문제

인권 침해에 대한 약한 처벌



특수학교의 교사가 아이를 대상으로 '폭행'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, 선생들 끼리 조용히 넘기는 경우가 많고 또한 처벌수준도 약하여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우리가해야할일 특수학교 문제 개선



이런 특수학교는 폐쇄적인 것이 구조적 특징이기에 문제가 크게 일어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많다 고 한다.

따라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구조적 특징을 없애거나, 일반 학교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.